

Luke 1:26-56

²⁶ In the sixth month of Elizabeth's pregnancy, God sent the angel Gabriel to Nazareth, a town in Galilee, ²⁷ to a virgin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a descendant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²⁸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²⁹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³⁰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³¹ You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call him Jesus. ³²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³³ and he will reign over Jacob's descendants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³⁴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since I am a virgin?"

³⁵ The angel answered, "The Holy Spirit will come 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So the holy one to be born will be called the Son of God. ³⁶ Even Elizabeth your relative is going to have a child in her old age, and she who was said to be unable to conceive is in her sixth month. ³⁷ For no word from God will ever fail."

³⁸ "I am the Lord's servant," Mary answered.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Then the angel left her.

³⁹ At that time Mary got ready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⁴⁰ where she entered Zechariah's home and greeted Elizabeth. ⁴¹ When Elizabeth heard Mary's greeting, the baby leaped in her womb, and Elizabeth wa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⁴² In a loud voice she exclaimed: "Blessed are you among women, and blessed is the child you will bear! ⁴³ But why am I so favored, that the mother of my Lord should come to me? ⁴⁴ As soon as the sound of your greeting reached my ears, the baby in my

路加福音 1:26-56

²⁶ 到了第六个月，天使加百列奉神的差遣往加利利的一座城去，这城名叫拿撒勒，

²⁷ 到一个童女那里，是已经许配大卫家的一人，名叫约瑟。童女的名字叫马利亚；

²⁸ 天使进去，对他说：蒙大恩的女子，我问你安，主和你同在了！

²⁹ 马利亚因这话就很惊慌，又反复思想这样问安是甚麽意思。

³⁰ 天使对他说：马利亚，不要怕！你在神面前已经蒙恩了。

³¹ 你要怀孕生子，可以给他起名叫耶稣。

³² 他要为大，称为至高者的儿子；主神要把他祖大卫的位给他。

³³ 他要作雅各家的王，直到永远；他的国也没有穷尽。

³⁴ 马利亚对天使说：我没有出嫁，怎麽有这事呢？

³⁵ 天使回答说：圣灵要临到你身上，至高者的能力要荫庇你，因此所要生的圣者必称为神的儿子（或作：所要生的，必称为圣，称为神的儿子）。

³⁶ 况且你的亲戚以利沙伯，在年老的时候也怀了男胎，就是那素来称为不生育的，现在有孕六个月了。

³⁷ 因为，出於神的话，没有一句不带能力的。

³⁸ 马利亚说：我是主的使女，情愿照你的话成就在我身上。天使就离开他去了。

³⁹ 那时候，马利亚起身，急忙往山地里去，来到犹大的一座城；

Luk 1:26-5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womb leaped for joy. ⁴⁵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the Lord would fulfill his promises to her!"

⁴⁶ And Mary said:

"My soul glorifies the Lord

⁴⁷ and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⁴⁸ for he has been mindful

of the humble state of his servant.

From now on all generations will call me blessed,

⁴⁹ for the Mighty One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holy is his name.

⁵⁰ His mercy extends to those who fear him,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⁵¹ He has performed mighty deeds with his arm;
he has scattered those who are proud in their
inmost thoughts.

⁵² He has brought down rulers from their thrones
but has lifted up the humble.

⁵³ He has filled the hungry with good things
but has sent the rich away empty.

⁵⁴ He has helped his servant Israel,
remembering to be merciful

⁵⁵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forever,
just as he promised our ancestors."

⁵⁶ Mary stayed with Elizabeth for about three
months and then returned home.

⁴⁰进了撒迦利亚的家，问以利沙伯安。

⁴¹以利沙伯一听马利亚问安，所怀的胎就在腹里
跳动。以利沙伯且被圣灵充满，

⁴²高声喊着说：你在妇女中是有福的！你所怀的
胎也是有福的！

⁴³我主的母到我这里来，这是从哪里得的呢？

⁴⁴因为你问安的声音一入我耳，我腹里的胎就欢
喜跳动。

⁴⁵这相信的女子是有福的！因为主对他所说的话
都要应验。

⁴⁶马利亚说：我心尊主为大；

⁴⁷我灵以神我的救主为乐；

⁴⁸因为他顾念他使女的卑微；从今以后，万代要
称我有福。

⁴⁹那有权能的，为我成就了大事；他的名为圣。

⁵⁰他怜悯敬畏他的人，直到世世代代。

⁵¹他用膀臂施展大能；那狂傲的人正心里妄想就
被他赶散了。

⁵²他叫有权柄的失位，叫卑贱的升高；

⁵³叫饥饿的得饱美食，叫富足的空手回去。

⁵⁴他扶助了他的仆人以色列，

⁵⁵为要纪念亚伯拉罕和他的后裔，施怜悯直到永
远，正如从前对我们列祖所说的话。

⁵⁶马利亚和以利沙伯同住，约有三个月，就回家
去了。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이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흐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